



# 새벽을 뚫고서

울산생활과학고 1-2 박지경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니 벌써 새벽이다. 이번에는 절대 생각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이었다. 시험은 코앞이고, 수행 평가는 우루루 밀려오고, 열등감에, 선생님께 혼난 기억, 실수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낮에는 그렇게 신나게 놀아놓고는 후회는 내가 쉬어야 할 시간에 몰려온다. 이 지겨운 패턴은 무려 4년째 현재 진행형이다. 4년째 진행형이다 보니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대충 파악했다. 이럴 땐 그냥 백색소음 영상을 켜고 책을 읽으면 된다. 요상하게도 책만 펴면 5분 안에 잠드는 것 같다. 오늘도 나는 그렇게 잠이 들었다. 눈이 부셔 눈을 뜨니 다시 아침이다. 어젯밤 나의 고심의 흔적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나는 습관처럼 또다시 학교로 향한다. 지겹도록 똑같은 풍경이 보이는 지겹도록 똑같은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학교에 다다랐다.

쓰윽 문을 여니 “아, 박쭈진 왜 이제 와?”

윤지다.

“아, 나 오늘 늦잠 잤잖아. ㅋㅋㅋ 진짜 지각할 뻔!”

나는 평소와 같이 윤지랑 까르륵거리며 이야기한다. 윤지는 두 달 전에 전학 온 귀여운 내 단짝 친구다. 어떤 이유로 전학을 왔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베프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내 예상은 적중했고, 나는 지금 보다시피 윤지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아침부터 왜 이리 시끄러운가 했더니 역시 쭈지(수진이와 윤지의 이름을 합친 말)답다. 자자, 다들 조용히들 하고 중간고사 3일 남은 거 알고 있지? 저번 시험에는 우리 반이 꼴등이었어... 다들 이번 시험은 열심히 준비해서 1등 해보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생기 넘치던 친구들의 얼굴이 중간고사 이야기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은 급격히 차가워진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시험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시며 다급하게 나가셨다. 한순간에 흐르게 된 정적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유지되었다.

탁탁

“자, 애들아, 우리 1교시부터 수행평가야. 다들 준비해야지.”

반장이 수행평가 이야기로 정적을 깼다. 나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수행평가 준비를 했다. 자습 시간과 수행평가로 콜라보 된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하교 시간이 되었다. 오늘 하루도 실수투성이였지만 낮의 나에겐 실수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오빠(아이돌)의 앨범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이 내겐 중요했다. 한걸음에 후다닥 집으로 달려갔다. 앨범도 개봉하고, TV도 보고, 저녁을 먹고 나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그제야 나는 시험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급히 책을 펴고 펜을 쥐었다. 한 15분쯤 지났을까? 나의 집중력은 산산조각이 났고 멍을 때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낮에 한 실수며 왜인지 찝찝한 느낌이 드는 수행평가며 곧 시험인데 미리 공부해 둘 걸 하는 초조함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1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차라리 조용히 눈을 감고 있자 하고 눈을 감았는데... 띠딩  
~ 띠딩~ 우리 반 단체 문자 방의 알림음이었다.

[이윤지 겁나 싸가지 없다고 전교에 소문남. 선배가 이윤지랑 아니다.  
이윤지 근처에 가는 애 있으면 가만 안 둔다더라. 너희도 조심해라.]

윤지가 단톡방에 아직 없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25의 안 읽음  
숫자는 모두 읽음으로 변했고 다음날부터 뭔가 묘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  
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윤지를 피했고 평소 윤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모두 윤지가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가  
기 바빴다. 솔직히 그 문자를 보고 나도 두려웠다. 윤지가 말을 걸면 바쁘  
다 하고 내 옆자리에 앉으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게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니 윤지가 어느 날부터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엔 ‘아파서 못 나왔겠지, 현장 체험 학습 쓰고 체험하러 갔겠지.’ 생각하  
고 넘겼지만 두 달째 윤지가 안 나오자 나는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이 들  
기 시작했다. 워낙 나와 친했던 친구라 늘 짝 활동도 함께 했는데 윤지 사  
건 이후로 윤지를 피하는 친구들을 보니 그런 그 친구들과 다니기에는 못  
미더웠다. 외롭고 윤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자꾸만 생각나고 걱정되었다.  
집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발을 동동 구르다 보니 새벽이 되었고 더는 참  
을 수 없어 윤지에게 문자를 넣었다.

[윤지야...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아직은 어두운 새벽 5시였다. 띠링~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응...]

기뻐서인지 불안해서인지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 앞 공원으로  
나섰다. 사실 나는 윤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사건 이후로 만  
난 적이 없었다. ‘윤지가 나를 피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학교에서 그랬기에 미안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리고 툭툭~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건 바로 윤지였다. 윤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 미안하고, 나와 준 것도 고맙고, 윤지를 피한 나 자신이 미워져서 눈물이 나왔다.

“윤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방관했으면 안 됐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어.”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윤지도 내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나 너무 무섭다고 믿을 사람은 너뿐이었는데 너마저 나를 두고 떠나니 괴로웠다고 윤지도 나에게 울분을 쏟아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 후 좀 진정이 된 후에 나는 윤지와 얘기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떤 무서운 소문을 들어도, 어떤 협박을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위험(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방관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는 윤지에게 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윤지도 내 사과를 받아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뜨기 시작했다. 해가 밝아오고 윤지와 나는 각자 준비하고 나와 팔짱을 끼고 등교했다. 전에는 그렇게 지겹던 그 길이 윤지와 함께 오니 한없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느껴졌다. 아 그리고 카톡에 글을 올린 친구와 선배는 결국 무거운 별을 받았고 방관했던 우리 반,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아니 아니 친구들도 학교 전담 경찰관분에게 교육을 듣게 되었다. 이후로 나와 윤지는 전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윤지에게 사과하고 함께 즐겁게 놀러 다니며 지내고 있다.